

| 국어는 이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파이널I 제1차 예비평가 정답과 해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I 제1차 예비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 홀수 ) 형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①	2	18	⑤	2	35	⑤	2	35	②	2
2	⑤	2	19	②	2	36	④	2	36	②	2
3	⑤	3	20	③	2	37	④	2	37	①	2
4	④	2	21	⑤	3	38	⑤	2	38	③	3
5	②	2	22	④	2	39	③	3	39	⑤	2
6	①	2	23	⑤	2	40	⑤	2	40	③	2
7	①	2	24	④	3	41	⑤	2	41	⑤	3
8	⑤	3	25	①	2	42	③	2	42	④	2
9	④	2	26	④	2	43	②	2	43	③	2
10	⑤	2	27	③	2	44	①	2	44	②	2
11	③	2	28	①	2	45	④	3	45	③	2
12	⑤	3	29	②	3						
13	①	2	30	⑤	2						
14	③	2	31	②	2						
15	③	2	32	③	2						
16	②	2	33	④	2						
17	④	3	34	②	3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 I 제1차 예비평가 해설

## • 공통과목 •

### [1 ~ 3] 독서론

#### 1. [출제의도] 책을 선정할 때의 고려 사항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 1’은 최근 4차 산업 혁명 관련 분야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을 떠올리고 『자율 주행』을 골랐으므로, 책을 선정할 때 최근의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였다.

**[오답풀이]** ② ‘학생 1’은 책을 선정할 때 독서 경험이 풍부한 이로부터 추천받은 책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 ③ ‘학생 2’는 배경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쉽게 읽을 책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책을 선정하지 않았다. ④ ‘학생 2’는 책의 제목을 보고 친구들이 흥미를 느낄 것으로 생각해서 책을 골랐다.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던 내용이 담긴 책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책을 선정한 것은 ‘학생 1’이다. ⑤ ‘학생 2’는 해당 분야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책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책을 선정하지 않았다.

#### 2. [출제의도] 학생들의 독서 방법을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 2’는 책에서 권하는 방법이 쉽지 않아 보여서 실제로 잘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학생 1’은 책 내용의 현실적 적용과 관련하여 그 실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목차를 살피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자율 주행 기술의 등장 배경을 다룰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② ‘학생 2’는 책에서 권하는 ‘프리 라이팅’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메모하며 읽었다. ③ ‘학생 1’과 달리 ‘학생 2’는 글 쓸 때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려웠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책 내용에 공감하였다. ④ ‘학생 2’와 달리 ‘학생 1’은 새로 출시된 차에 대해 자율 주행 2단계에 해당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읽었다.

#### 3. [출제의도] 학생의 독서 방법에 대해 적절하게 조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 1’은 책의 1장부터 4장에서 흥미를 못 느끼고 6장만 골라 읽고 발표를 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책 내용을 단계적으로 설계한 저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읽기를 하라는 것은 <보기>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조언이다.

**[오답풀이]** ① 저자의 관점을 충실히 따르며 정리하라는 것은 <보기>와 관련 없는 조언이다. ② 목차를 보고 저자의 핵심 의도가 담긴 부분에 더 주목하라는 것은 특정 부분에만 주목하지 말고 책의 전체적인 구성을 고려하여 읽으라는 <보기>에 부합하지 않는 조언이다. ③ ‘학생 1’이 쓰인 순서대로 책을 읽은 것도 아니며, 책의 구성 방식을 참고하여 능동적으로 읽으라는 것도 <보기>를 제대로 반영한 조언은 아니다. ④ 책의 내용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찰하며 읽으라는 것은 <보기>와 관련 없는 조언이다.

### [4 ~ 9] 인문-예술 통합

####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92쪽

#### 4. [출제의도] 지문의 서술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수반 개념을 사용한 미적 수반론이 순환적인 주장을 할 뿐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 (가)는 수반 개념을 사용한 이론들이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 모두 수반 개념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을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② (가)와 (나) 모두 수반 개념을 사용하는 이론을 설명하고 있을 뿐, 수반 개념으로 설명하기 힘든 현상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 않다. ③ (가)와 (나) 모두 수반 개념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⑤ (가)는 수반 개념이 변천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나)는 수반 개념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5.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미적 반실재론자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작품에 대해 사람들이 유사한 미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들은 유사한 미적 관습을 형성한 사람들이 유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할 뿐이다.

**[오답풀이]** ① 정신이 물질로서 실재하는 것이 라면 정신이 물질과 동일한 것이거나 물질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는 방식으로 정신과 물질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다. ③ 창발주의자들은 물리적 속성에 수반하는 동시에 창발된 정신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속성이라고 본다. ④ 감상자의 가치 판단에 따라 미적 속성이 변화한다고 보는 것은 미적 속성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아니라 미적 반실재론자이다. ⑤ 미적 수반론자는 비미적 속성이 미적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미적 속성이 비미적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6. [출제의도] 특정 학자의 입장에서 특정 개념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김재권을 비롯해 수반 개념을 받아들이는 학자들에 따르면, 수반이란 모든 정신적 속성 각각에 대해 그것의 기저가 되는 물리적 속성이 반드시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김재권은 모든 물리적 속성들이 그 각각에 대해 이에 수반하는 정신적 속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물리적 속성 중에는 정신적 속성이 이에 수반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② 김재권은 정신적 속성을 기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 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속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 정신적 속성이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된다고 보았다. ③ 김재권은 정신적 속성이 물리적 속성에 수반한다고 보며, 그 정신적 속성 각각에 대해 그것의 기저가 되는 물리적 속성이 반드시 있다고 본다. ④ 김재권에 따르면 심신 이원론 중에 창발주의는 수반 개념과 양립 가능하지만 데카르트적 심신 이원론은 수반 개념과 양립하지 못한다. ⑤ 정신이 물질에서 창발된 것이므로 환원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은 창발주의이다. 김재권에 따르면 데카르트적 심신 이원론만이 수반 개념과 양립할 수 없고, 창발주의는 수반 개념과 양립할 수 있다.

#### 7.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두 학자가 동의하는 진술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 시블리와 레빈슨 모두 수반 개념을 활용하여 미적 속성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학자인데, 이는 미적 속성이 시각, 청각, 촉각 등 보통의 감각으로 인식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ㄴ: 시블리와 레빈슨은 미적 속성이 비미적 속성에 수반하는 동시에 창발된 것으로서 작품의 부분적 요소들이 상호 작용을 하여 발생한 새로운 속성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미적 속성이 작품의 부분적 요소 같은 비미적 속성으로 표현될 수 없다고 본다.

**[오답풀이]** ㄴ: 시블리는 미적 속성이 수반하는 그 기저 속성으로 물리적 속성만을 고려하였다. 반면 레빈슨은 미적 속성이 수반하는 그 기저 속성에 물리적 속성 외에 예술사적 맥락이나 장르, 작가 정보 같은 맥락적 속성도 포함시켰다. ㄷ: 시블리와 레빈슨 모두 미적 속성이 비미적 속성으로부터 창발되는 것이므로 미적 속성은 비미적 속성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속성이라고 본다.

#### 8. [출제의도] 지문을 통해 <보기>의 가상 대화를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김재권이 레빈슨의 기본 이론과 <보기>의 추가 내용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레빈슨의 주장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는 대화 상황이다. 미적 속성의 실재성을 믿는 레빈슨은 미적 속성이 창발된 것으로서 실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적 속성의 실재성을 주장하기 위해 레빈슨은 미적 속성이 물리적 속성과 맥락적 속성 외에 하부 구조적 속성에도 의존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 의견을 포함한 레빈슨의 입장에 대해 물리주의를 따르는 김재권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지문에 따르면 물리주의는 미적 수반론에 대해 미적 속성이 물리적 속성으로 환원되지도 않은 채 어떻게 실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는 입장이다.

**[정답풀이]** 레빈슨은 인간이 지각하지 못하는 물리적 속성, 즉 하부 구조적 속성도 미적 속성이 수반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런 속성까지 고려한다면 미적 속성 판단의 불일치 현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명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속성까지 고려하더라도 미적 속성이 그런 물리적 속성이 주는 경험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주는 것으로서 실재한다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김재권은 수반 속성이 기저 속성으로 환원됨으로써 실재한다고 보는 물리주의를 따르므로, 기저 속성으로 환원되지도 않는 미적 속성의 실재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레빈슨의 견해대로 비미적 속성을 맥락적 속성과 하부 구조적 속성으로 확장하면 미적 속성의 지각이 각기 다른 이유를 맥락적 속성과 하부 구조적 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그렇게 비미적 속성을 확장하면 미적 속성 지각의 불일치 현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 있다. ② 레빈슨의 이론은 미적 속성에 대한 기저 속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③ 레빈슨의 미적 수반론은 미적 속성이 비미적 속성에 수반하면서 창발하는 것으로 비미적 속성과 다른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미적 속성이 기저

속성으로부터 독립된 완전한 자율성을 갖는다고 보는 입장은 아니다. 미적 속성이 독립되어 완전한 자율성을 갖는 것이라면 비미적 속성에 수반한다는 것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④ 레빈슨의 이론은 미적 속성이 기저 속성으로 환원된다는 주장이 아니라, 미적 속성이 기저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해당한다.

**9. [출제의도] 지문의 단어와 문맥상 동음이의 관계인 단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의 '습득(習得)'은 문맥상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배워서 자기 것으로 함.'라는 의미이며, ④의 '습득(拾得)'는 '주워서 얻음.'이라는 의미이므로 두 단어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다.

**[10 ~ 13] 사회**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41쪽**

**10.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특정 대상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처럼 헌법에서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의 경우 간접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 엄격한 심사 척도가 필요하다. 이 헌법 조항은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 외에도 종교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교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간접 차별로 인정할지 판단할 때에도 엄격한 심사 척도가 필요하다.

**[오답풀이]** ① 헌법 재판소에 따르면 이 조항은 일체의 차등적 대우를 배척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헌법의 이 조항에 간접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채용 조건이나 근로 조건 등이 간접 차별에 해당하느냐의 판단 기준을 사업주의 의도로 규정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이다. ③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권을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권도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④ 본질적으로 다른 두 집단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 기계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만 차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11. [출제의도] 헌법 재판소의 특정 판결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산점의 부여 조건인 제대 여부는 한동안 사회와 단절되어 있던 제대 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된 것이다. 이는 그 내용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제대 여부로 가산점의 부여 조건을 정한 것에 차별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차별의 의도가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가져온 것으로 봐야 한다.

**[오답풀이]** ① 제대 여부를 기준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제대군인지원법의 이 조항은 제대 군인과 제대 군인이 아닌 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판단에서 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대 군인을 지원해야 하는 목적을 적절하게 달성하려면 이를 기준으로 다르게 대우해야 하기 때문이다. ② 여성에게 차등적 효과가 나타난 것은 이 조항의 목적이 아니다. 이는 의도치 않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효과이다. ④ 헌법 재판소는 제대 군인 가산점에 대해 성별에 의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 외에 헌법에 의해

보장된 공무 담임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 척도를 적용하였다. ⑤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금한다는 내용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에게 차등적 효과가 유발된다면 엄격한 심사 척도를 적용하여 해당 헌법 조항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침해 여부를 고려해야만 한다.

**12.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보기>의 사례를 적절하게 검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가)는 교원 임용 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을 다루고 있다. 헌법 재판소는 시험 관리 인력 및 시행 장소 등의 확보를 위해 요일을 정했다는 점, 즉 정당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응시가 사실상 제한되지 않았다는 점, 즉 심각한 차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엄격한 심사 척도를 적용하더라도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나)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되는 법적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근력 테스트 점수를 채용에 반영한 것은 수학 교사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을 반영한 것이며 실제로도 남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므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경찰을 뽑을 때에 근력 테스트 점수를 반영한다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차별이라 보기 힘들 것이다.

**[정답풀이]** 을이 제시한 근력 테스트 조건은 남녀에게 차등적 효과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의 조항을 보면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특정한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어야 간접 차별로 인정된다. 즉 차등적 효과를 낳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차별로 인정되지 못한다. 근력 테스트 조건이 수학 교사 채용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할 때에 비로소 간접 차별로 인정될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같은 차등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종교인을 비종교인과 다르게 대우한 결과가 아니다. 공히 일요일에 시험을 치러야 하므로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같게 대우한 결과이다. ② 헌법 재판소는 관리 인력과 장소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법률에 차별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은 아니다.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어야 차별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인력과 장소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체력을 검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목적으로 인해 비교 대상이 남녀 간의 문제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목적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남녀 간의 비교 문제로 전환된 것이다. ④ 공무 담임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립 학교에서의 채용 공고라는 점은 적절한 설명이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제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차등적 효과를 낼 뿐 아니라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어야 간접 차별인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은 성별에 따른 차별 문제이기도 하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 특별히 차별을 금지하는 영역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심사 척도가 적용될 것이다.

**13. [출제의도] 문맥상 의미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중립적인 조건에 따른다는 것은 차별의 의도 없이 법률 조항이나 법적 조치의 적절한 목적에 따라 기준을 제시하여 적용 대상을 정한다는 의미이다.

**[오답풀이]** ② 차별을 이미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성별에만 국한하여 해당 표현을 바꿔 쓸 수는 없다. ④ 특정한 속성은, 중립적인 조건에 따라 적용 대상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등적 효과가 유발되는 대상이 지닌 속성이다. ⑤ 목적은 법률이나 조치마다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보상이라는 목적을 담은 표현으로 바꿔 쓸 수는 없다.

**[14 ~ 17] 과학**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77쪽**

**14. [출제의도] 지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인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PKC는 어떠한 경우에도 IRS1의 활성화에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과발현되는 경우 IRS1이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하는 부위에 있는 세린을 인산화하고, 그 결과 IRS1이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때에도 IRS1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지문에는 근육이나 간에 중성 지방이 축적될 때 DAG가 중간 산물로 나타난다고 서술되어 있다. ② 지문에는 제2형 당뇨병의 경우에도 인슐린이 공복 시에나 음식물 섭취 시에 비교적 적정량이 분비된다고 서술되어 있다. ④ 지문에는 당뇨병이 심혈관 계통과 눈이나 말초 신경 등에서 합병증을 잘 유발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제2형 당뇨병의 경우에도 해당 계통에서의 합병증이 유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지문에는 간이나 근육에 포도당을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했다가 공복 시에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액으로 공급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15.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인슐린은 지방 조직에서 혈당이 지방 형태로 변환되어 저장되도록 돕는 기능도 한다. 특히 지문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늘어난 인슐린이 지방 축적을 더 많이 일어나도록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난 초기 환자에게 주사로 인슐린을 반복 공급하면 다량의 인슐린에 의한 지방 축적에 의해 비만이 심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PKC는 단백질에 포함된 세린에 인산기를 결합시켜 해당 단백질을 활성화한다. ② 인슐린은 인슐린 수용체의 세포막 바깥쪽 부위에 결합하고, 이를 통해 인슐린 수용체의 세포막 안쪽 부위의 입체 구조를 변화시킨다. ④ 인슐린 저항성을 지니지 않은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도 음식물을 섭취한 직후에 혈당이 높아진다. 다만 높은 혈당이 오래 유지되지 않고 인슐린의 작용에 의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정상 범위로 낮아진다. ⑤ 말초 조직의 세포에는 혈중 포도당이 공급된다. 그 포도당은 음식물 섭취를 통해 유입된 것일 뿐 아니라 간에서 생성된 것일 수도 있다.

**16. [출제의도] 특정 상황에서 관찰되는 현상을 <보기>에서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ㄴ.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는 초기에는 인슐린의 작용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채장에서 인슐린이 정상치보다 더 많이 분비되는 현상이 관찰될 수 있다.

[오답풀이] ㄱ.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공급되지만 인슐린의 작용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이다. 참고로 췌장의 베타 세포가 파괴되어 체내에 인슐린이 공급되지 않는 질병은 제1형 당뇨병이다. ㄴ. 인슐린 저항성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에도 활성화된 GLUT4가 나타난다. 다만 그 양이 충분하지 못할 뿐이다. 지문에 따르면 인슐린이 인슐린 수용체에 결합하더라도 세포막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활성화된 GLUT4들이 충분치 못한 상태이다. ㄷ. 인슐린 저항성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글루코카이네이스 효소의 활성도가 정상치보다 낮다. 그 결과 글리코젠 분해나 당 신생을 저해하는 인슐린의 작용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글루카곤의 작용이 활발해질 것이다.

**17. [출제의도] 지문을 토대로 한 진술을 적절하게 완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DAG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이유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도록 빈칸을 채워 넣어야 한다. 이때 ㉔에는 혈중 포도당이 세포 내부로 원활하게 유입되기 위한 조건이, ㉕에는 GLUT4가 세포 안팎의 연결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는 선행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풀이] ㉔에는 혈중 포도당이 세포 내부로 원활하게 유입되기 위한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GLUT4가 PI3K에 의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㉔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또한 ㉕에는 GLUT4가 세포 안팎을 연결하는 구조를 형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IRS1의 세린이 인산화됨으로써 IRS1들의 입체 구조가 변한다는 내용은 ㉕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GLUT4는 활성화된 PKC에 의해 활성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과발현된 PKC는 GLUT4의 활성화를 방해한다. 또한 IRS1과 결합하는 인슐린 수용체의 입체 구조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IRS1의 입체 구조가 변화하면서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활성화된 GLUT4들이 충분치 못한 상태가 된다. ② GLUT4는 세포막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된 후에 세포막 쪽으로 이동한다. ③ DAG가 세포 내부에 다량 축적되어 있더라도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의 결합 자체가 방해 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결합 이후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할 뿐이다.

**[18 ~ 21] 고전시가**

➔ 연계 지문 : 박인로, 「사제곡」(수능완성 251쪽)

**18.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표현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는 특정한 계절이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푸른 물결 넘실대니’, ‘산봉우리 첩첩하니’, ‘숲 깊어 산길 어두우니’, ‘샘물 달고 땅 비옥하니’에서 사제라는 공간의 다양한 특성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9. [출제의도] 시구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산수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 리 없음에도 화자가 느끼기에는 사제의 산수가 자신에게 다정한 듯 보인다는 뜻이다. 즉, ‘유정하게 보이도다’는 대상의 인상을 나타내는 말하면서

또한 그것을 통해 화자 자신이 대상에 대해 느끼는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에서 ‘제일강산(풍광이 빼어난 땅)’에 ‘임자’가 없다는 것은 화자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는 뜻이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또, 여기에 내포된 화자의 감정은 아쉬움이 아니라 다행스럽고 반가운 마음이다. ③ ㉡에 나타난 공간의 분위기는 탈속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은 그러한 공간의 분위기를 냇물에 꽃잎이 가득 잠겨 있는 모습을 통해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관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 백발이 된 부모를 임종 때까지 사제에서 잘 모시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사제의 자연 속에서 지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⑤ ㉤은 세속적인 욕망이 없으니 세속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세속에서 멀어졌다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일 뿐, 세속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가정이나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0.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와 기능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화자가 ‘갈매기’, ‘사슴’, ‘청풍명월’을 자신의 것인 듯 여기고 지내면서 누리는 ‘남과 다른 부귀’, 즉 자연 속에서 누리는 삶의 즐거움을 의미한다. ㉡는 그것과 대비되는 부귀, 즉 ‘홍진’의 ‘남’들이 누리는 물질적, 세속적인 부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심미적으로 완상하는 대상이란 아름다운 것을 살펴 찾으려는 태도로 즐겨 구경하는 대상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태도와 ㉡는 무관하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화자는 자신이 새로이 ‘한 일 없이’ 이미 사제에 ‘향산’이 ‘다 있’다고 진술했는데, 여기서의 ‘향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산이나 생업.)’은 생계를 위한 경제적 토대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로 쓰인 말이다. 자신의 노력 없이도 이미 수많은 ‘갈매기’와 ‘사슴’이 있어서 자기 소유의 ‘가축’처럼 보고 즐길 수 있으며, 이미 아름다운 ‘청풍명월’이 있어서 그것을 공짜로 ‘내 것’처럼 즐길 수 있다는 만족감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시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생계유지와 관련지어 사제가 비옥한 땅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화자는 사제의 ‘물빛과 산색’이 마치 예전에 보았던 ‘옛 얼굴을 다시 본 듯’ 친숙하고 반갑다고 하면서, 자신의 ‘평생 몽상(여기서 ‘몽상’은 염원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다.)’이 자신을 사제로 ‘오라 하여(불러서)’은 것이기에 그런가 하고 말한다. 이는 이덕형이 오래전부터 사제에서 지내기를 염원해 왔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여기서 사제를 ‘위수 이천’, ‘부춘 기산’, ‘회운 운곡’, ‘이원 반곡’에 견준 것은, 이덕형이 그런 장소들에 은거한 옛사람들처럼 빼어난 정치적 역량과 덕망을 지닌 인물이라는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22 ~ 27] 현대소설-수필 통합**

➔ 연계 지문 : 이상, 「산촌 여정」(수능특강 228쪽)

➔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22.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나’와 ‘안’의 대화가 중점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나’와 ‘안’은 대화를 통해 각각 자신이 품은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23. [출제의도] 인물들의 관계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는 대학원생인데도 부자인 ‘안’의 처지는 ‘나’와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으며, ㉡ 이후의 대화에서 ‘안’은 ‘나’가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하였고 그로부터 자신과 비슷한 느낌을 가졌으리라는 판단 아래 계속 ‘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문맥을 고려할 때 ㉢은, ‘나’가 ‘안’의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자신과 ‘안’ 사이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나 거리감을 드러내자 ‘안’이 그것을 갑갑해하며 ‘나’ 또한 자신과 같은 느낌을 받았음을 환기하려는, 그럼으로써 ‘나’와 ‘안’ 사이의 공통적인 감각을 깨우려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의 앞에서 ‘안’은 ‘우리 또래의 친구를 새로 알게 되면 꼭 꿈틀거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진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이야기가 금방 끝나고 마는 상황이므로, ‘안’은 이에 대해 단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② ‘나’는 ㉠에서 ‘안’과 자신 사이에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있다. ‘안’과 자신을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다. ‘안 형 같은 사람’과 ‘나 같은 친구’라는 표현은 그런 인식이 드러난 표현이다. ③ ‘나’와 ‘안’은 모두 밤거리를 다닌 경험을 간직하고 있는데, ㉢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안’은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낀다. ㉣은 ‘나’ 역시 밤거리에서의 경험으로부터 그러한 해방감을 느꼈으리라는 생각을 담은 말이다. 한편 ‘안’이 또래들과의 대화에서 단절감을 느꼈음을 고려할 때, ㉢에 담긴 이러한 생각에는 ‘나’와의 소통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내포되어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2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안’은 ‘나는 사물의 틈에 끼여서가 아니라 사물을 멀리 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라고 말하는데, 문맥을 고려할 때 이 말은 밤에 자신이 사물을 보는 방식에 대한 말이다. 밤에는 기성의 질서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 근대에 대한 비판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안’의 말은 밤에 대한 것이지 낮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평화시장 앞’의 ‘가로등’과 ‘화신 백화점 옥 층의 창들’의 ‘물빛’에 대한 ‘나’의 말은, 날이 어두워진 저녁과 밤의 시간대에 지각된 경험에 대한 진술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지각과 진술은 근대적 합리성의 질서 속에서는 일견 무의미해 보이는데, ‘선생님의 안내’를 참고하면 이는 근대적 합리성에서 벗어나 사물을 새롭게 포착하는 시선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밤의 시간대에 지각된 경험에 대한 ‘나’의 말을 들은 ‘안’은, ‘놀라운 기쁨’을 드러내며 자신이 지각한 내용인 ‘서대문 버스 정거장’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서로 감각적 경험을 나누며 소통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앞부분의 줄

거리'를 참고하면 두 인물이 이처럼 자신들의 감각적 경험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밤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작품 전체의 내용을 참고할 때 '서대문 버스 정거장'의 사람들을 '안'이 본 시간은 저녁으로, 역시 낮에서 벗어난 시간대이다.) ⑤ '안'은 '이렇게만 낮엔 그저 스쳐 지나가던 모든 것이 밤이 되면 내 시선 앞에서 자기들의 별거벗은 몸을 송두리째 드러내 놓고 쫄쫄댄단 말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선생님의 안내'를 참고할 때 낮과 밤의 이러한 대비는 기성의 질서가 전도(=차례, 위치, 이치, 가치관 따위가 뒤바뀌어 원래와 달리 거꾸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듦.)되는 시간으로서의 밤의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25.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표현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글쓴이는 '청동호박'으로부터 '호박 고자리에 무시루떡'을 연상하며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는 '한식날'의 풍습을 떠올리기도 하고, '럭비공'을 연상하며 새로운 시대의 건강한 젊은이들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기도 한다.

**[오답풀이]** ②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한 것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밝힌 것도 아니다. ③ [A]에는 사람들의 상반된 견해가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두 가지 연상이 나타나 있다. ④ 대상의 형태로부터 '넓적하고도 묵직한 안정감'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새것만을 좇는 경박한 세태를 이와 대조하지는 않았다.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작가가 '활동사진'을 '한날 동화적인 꿈'이라거나 '홍모 오랑캐의 요술'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문에서 해당 부분은 '그러나 이곳 주민들은 활동사진에 대하여 한날 동화적인 꿈을 가진 채 있습니다. 그림이 움직일 수 있는 이것은 참 홍모 오랑캐의 요술을 배워 가지고 온 것 같으면서도 같지 않은 동포의 부러운 재간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농촌의 주민들이 영화를 본 적이 없기에 영화에 대해 막연한 생각('한날 동화적인 꿈')만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서양인('홍모 오랑캐')들의 '요술'처럼 여긴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대목은 농촌을 시대에 뒤떨어진 전근대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드러난 대목이라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⑤ 작가는 '동글납작한 머리가 그대로 카메라가 되어' '옥수수 무르익어 가는 초가을의 정경을 촬영'하였으며, 그것을 '도회에 남아 있는 몇 고독한 팬에게' '스틸'로 보낸다고 하고 있다. 이는 농촌의 풍경을 자신의 시선으로 포착하여 글로 쓰는 행위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자신의 시선을 카메라에 빚댄 것에서, 농촌에 관찰적 시선을 던지는 작가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27.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㉞는 '기생화'라는 화초에 대한 진술로서, 글쓴이는 이로부터 연상되는 기생의 모습을 두고 '여기 필 기생꽃'은 조선 시대 그림이나 자신이 어린 시절에 보던 '지금은 지난날의 삽화인 기생일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앞부분에서 글쓴이가 연상한 '도회의 기생의 아름다움'과 대비

하여 ㉞는 도회가 아닌 '여기'에 대한 인상을 나타낸 구절로 이해할 수 있다. 글쓴이는 이를 통해, 자신이 요양하고 있는 농촌이 예전 시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곳이라는 인식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나'는 시간이 늦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 나가는 것이 소용없다고 여겨 '안'과 헤어지려 생각하고 있다. '결국 그렇고 그렇다.'라는 내면 진술이나, 자신을 붙잡는 '안'을 '나'가 '귀찮'게 여긴다는 서술 등에서 이를 알 수 있다. ④ ㉞는 글쓴이의 '도회' 사람으로서의 체취가 매일매일 희미해지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글쓴이의 체취는 여주 냄새 때문에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머무는 날이 길어지면서('세숫비누에 한 겹씩 한 겹씩 해소되는', 즉 매일 세수를 하면서) 없어지는 것이다. 바로 앞 문장에서 글쓴이는 '이 야채도 과실도 아닌 유머러스한 용적', 즉 여주에 '향기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⑤ ㉞는 도회에 대한 그리움이나 농촌에 머무는 생활 도중 문득 느끼는 슬픔 같은 것들이 농촌의 풍경 사이에 삽입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 문단에서의 '피곤한 따분 렌즈'라는 표현이나, '중략' 이전 문단에서의 '연필같이 수척하여 가는 이 몸'과 같은 표현을 볼 때, 글쓴이가 농촌에서 활력 넘치는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글쓴이의 도시에서의 기억과 감정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지문에 나타나 있지 않으며, '플래시백'의 어휘 풀이를 고려할 때 이는 오히려 도시에서의 기억과 감정이 솟아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라 보는 것이 적절하다.

**[28 ~ 30] 현대시**

- ➔연계 지문: 김수영, 「파발 가에서」(수능특강 107쪽)
- ➔작가 연계: 오세영, 「모순의 흙」(수능완성 242쪽)

**28. [출제의도] 두 작품의 공통점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라는 구절은 모순 관계에 있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동일시한 역설적 표현으로,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낡은 것을 버려야만 한다는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나)에서는 '흙이 되기 위하여 / 흙으로 빚어진', '깨어져서 완성되는' 등의 구절에서 역설적 표현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죽음으로 삶이 완성이 될 수 있다는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나)는 제4연에서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가)는 어순의 도치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③ (가)에서는 '~을 보아라'라는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의지를 표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나)에는 명령적 어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2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먼지 앓은 석경'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거울의 기능을 상실한 물건이다. 한편 그 너머에서 움직이는 '너의 그림자'는 '목은 사랑'에 대응되고 있다. 이를 종합할 때, '먼지 앓은 석경' 너머에서 움직이는 '너의 그림자'는 낡은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낡은 질서를 극복한 뒤 태동하는 새로운 가치관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풀이]** ① '목은 사랑'은 <보기>에서 언급한 과거의 낡은 가치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목은 사랑'을 '삶은 계란의 껍질'에 빚댄 것은, 과거의 가치관을 일상 속 사물에 빚대어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목은 사랑'이 '벗겨진다고 한 것은, 낡은 가치관이 사라지게 될 시대 변화의 조짐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③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있는 것은 진작 없어졌어야 할 것이 아직 남아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그 '물'처럼 '목은 사랑'이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다는 것은, 낡은 가치관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30. [출제의도] 시상의 전개 양상을 고려하여 특정 부분의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E]에서 화자는 시의 도입부에 제시한 '흙이 되기 위하여 / 흙으로 빚어진' '그릇'이라는 역설적 진술을 되풀이하고 있다. 깨어지기 위해 그릇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을 담은 이 진술은, 그릇의 운명과 인간의 삶을 동일시하고 있는 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인간의 죽음을 비극적 결말이 아닌 삶의 완성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모순'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러한 모순이야말로 삶의 진실임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죽음을 긍정할 수만은 없는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과는 무관하다.

**[오답풀이]** ② '바싹 깨지는 그릇'과 '한 번' 죽는 '인간'을 병치함으로써, '인간'도 '그릇'처럼 필연적으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③ '물로 반죽되고 불에 그슬리는 것은 '흙'이 '살아 있는 흙'인 그릇이 되기 위해 겪어야만 하는 고난과 시련의 과정이다. '인간'도 누구나 '물에 젖고 / 불에 탄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흙'과 '인간' 사이의 동질성을 부각함으로써 '인간'이 겪는 고난과 시련이 삶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④ '깨어져서 완성되는' '접시'가 되겠다는 말은, 흙으로 빚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최후를 맞는 그릇처럼 죽음을 통해 삶을 완성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는 죽음을 비극적 결말이 아닌 삶의 완성으로 받아들여려는 관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접시의 깨어짐을 단지 '파멸'이 아닌 '절대의 파멸'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31 ~ 34] 고전소설**

- ➔작자 미상, 「정수정전」(수능완성 230쪽)

**31.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 후가 영춘에게 곤장을 가한 뒤, 평소 정 후를 거만하다고 여기던 왕 부인은 아들 장 후를 불러 '(이러저러하니) 내가 집안을 잘 다스린다 하겠느냐?'라고 나무란다. 곧 왕 부인은 정 후가 영춘을 처벌한 것을 알게 되자 정 후 대신 아들 장 후를 불러 질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 후가 영춘을 처형한 뒤에도 마찬가지로이다.

**[오답풀이]** ④ 정 후가 영춘을 죽인 뒤 장 후는 정 후를 마뜩잖게 여겨 왕 부인 문안 때에 만나도 남 보듯 하였다고 되어 있다. 장 후가 왕 부인 문안하는 일을 중지한 것은 아니다. ⑤ 장 후

의 냉대를 받다가 장 후를 만난 자리에서 정 후가 혼인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 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혼인 때의 언약을 상기시켜 장 후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경위로 부부가 되었지만 자신은 보잘것없는 아내자의 소임에 만족할 수 없다고 밝히기 위해서이다.

**32. [출제의도] 특정 발화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는 ‘네 머리를 베어 교활하고 간악한 계집종을 징계하겠다’며 화자 자신의 의지를 직접 표명하고 있다. [B]에서는 상대방에게 ‘(네가) 한 여자를 제어하지 못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화자가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곧 상대방에게 ‘한 여자’ 즉 정 후를 제어하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뜻을 담고 있다.

[오답풀이] ② [B]의 첫 문장은 설의적 표현이지만 이는 상대방이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어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⑤ [B]에서 자기가 신임하는 시비에게 머느리가 곤장질을 했다는 과거 사건이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남에게 부끄럽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지 그것을 가지고 현재 사태의 원인을 추측하고 있지는 않다.

**33. [출제의도] 특정 구절이 갖는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㉞은 영춘의 목을 벤 정 후를 벌하기 위해서 정 후 대신 정 후가 신임하는 시녀를 잡아들여 때린 뒤에 죽이려 했다는 내용인데, 정 후의 행위가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인 만큼 ㉞이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인 것은 맞다. 그러나 ‘사태를 악화시킨 인물’을 제거하려는 뜻과는 무관하다. ‘사태를 악화시킨 인물’은 정 후의 시녀들이 아니라 정 후 자신이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화관’은 꽃 장식이므로 여성적 역할을 상징하며, ‘용복’은 무신이 입던 군복이므로 입은 사람이 무신의 지위에 있음을 드러낸다. ‘화관’을 벗고 ‘용복’을 입었다는 것은 부인으로서가 아니라 무신이라는 공적 지위에 의거해서 일을 처리하겠다는 자세를 함축하고 있다. ③ ‘제가 불초하므로 여자의 방자함이 이와 같음 이로소이다.’라는 말은 자신에게 ‘여자가 방자하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이는 남편인 자신에게 아내를 제어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는 가부장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⑤ 주인공은 영춘을 벌하면서 ‘천한 중’이라며 상대를 천시하고 있다. ㉞에서도 ‘회첩’ 따위의 일에 군후 혹은 군자가 뭐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는 식으로 사람에게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을 당연시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곧 주인공이 중세적인 신분 질서에 대해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그것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주군’ 곧 남편의 총애를 받고 남편의 부인을 업신여기는 첩을 주인공이 벌하는 장면은, 처첩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을 당시 사대부 가문의 여성(하층민들은 대부분 첩을 둘 수 없었으므로)들에게 일종의 대리 만족감을 주었을 것이

라고 짐작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정 후가 영춘을 처벌하는 장면에는 가부장제하에서 억압당한 사대부 가문 여성 독자층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춘을 처벌하는 것은 정 후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그려지고 있지, 다른 두 부인이 그에 동의하거나 합세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정 후 자신이 청주 후에 봉해져 있으므로 공후의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다른 ‘공후나 재상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남편(정 후와 같은 공후이다.)의 후광 같은 것에 기대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공후이므로 자신의 지위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태도라 할 수 있다. ⑤ 남편에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아내자의 소임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한 뒤 자신의 봉읍인 청주로 가겠다고 시어머니에게 하직을 고하고 있으므로, 청주를 다스리는 자신의 공적 지위에 기대어서 주인공이 가정에서 뛰쳐나오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35 ~ 37] 화법**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41쪽

**35. [출제의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강연자는 ‘도시가 꿀벌의 서식지로 ~ 이로온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청중의 통념이 실제 사실과 다름을 지적하며 강연 내용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다.

**36. [출제의도] 학생의 듣기 활동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이 강연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반성하며 듣고 있는 내용은 없다.

[오답풀이] ① ‘따뜻한 기온, 밀원 식물을 활용한 조경, 농약 노출 위험이 낮다는 점’ 등 강의 내용 중 도시가 꿀벌 생존에 이로운 이유에 대한 정보를 요약정리하며 들었다. ② ‘우리 집 앞 화단에 ~ 꿀벌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겠어.’라고 강연 내용을 응용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들었다. ③ ‘~ 도시 양봉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어.’라고 강연을 통해 알게 된 정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들었다. ⑤ 강연에서 생략된 정보인 ‘도시 양봉이 도시 환경의 상태를 파악하는 지표가 된다’가 무슨 의미인지 추가로 조사할 것을 떠올리며 들었다.

**37. [출제의도] 강연자가 자료를 활용한 방식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강연자는 우리 구의 조경에 활용되고 있는 밀원 식물의 개화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 2>를 ㉞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는 개화 시기가 서로 다른 밀원 식물을 조경에 활용하면 꿀벌의 꿀 채취 기간이 늘어나 4월부터 9월까지 계속해서 꿀을 채취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오답풀이] ①, ② 우리나라에서 꿀벌 군집의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자료 1>을 ㉞에서 활용하였다.

**[38 ~ 42] 화법 - 작문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68쪽

**38. [출제의도] 대화에 나타난 ‘학생 1’의 발화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 1’이 ‘내가 초고를 써 올 테니 다들 점검 부탁해’라고 대화 이후의 계획에 대해 밝히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대화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비평문을 쓰기 위해 오늘 함께 이야기하기로 했잖아’라고 대화의 목적을 밝히며 ‘글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이야기해 보자’라고 대화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② ‘어떤 사람들이 간판의 정보로부터 소외되는지 더 설명해 줄 수 있어?’라고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③ ‘우리 동네의 일부 간판들이 영문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세련되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표기 문자가 영문이어서 간판이 세련돼 보였던 건 아닌 것 같네.’라고 수정하고 있다. ④ ‘간판의 한글 미표기 현상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에서 비평문을 쓰도록 해야겠어. 다들 동의하지?’라고 자신의 의견에 대화 참여자가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39. [출제의도] 대화의 특정 맥락에서의 발화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앞선 질문에 대해 ‘주로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소외’된다고 답변하며 자신의 할아버지가 간판의 정보로부터 소외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40. [출제의도] 비평문에 반영된 대화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5문단은 한글 표기 간판을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41. [출제의도] 비평문의 표제와 부제를 적절하게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표제에서 ‘한글 표기가 없는 간판이 달린 상점, 무엇을 파는 곳인가요?’라고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간판이 담고 있는 정보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한글 표기가 없는 간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부제에서 ‘우리 주변의 간판,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라고 글쓰이의 관점을 제시한 ⑤가 가장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비평문을 적절하게 점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 한글 표기가 있는 간판이 없는 간판보다 색다르거나 세련된 느낌이 덜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외국 문자로만 표기한 간판은 색다르거나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어 간판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감이 높다는, 외국 문자로만 표기된 간판을 설치한 사업주의 생각을 언급했을 뿐이다.

**[43 ~ 45] 작문**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34쪽

**43. [출제의도]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초고’의 둘째 문단에 매운맛의 가장 큰 특성을 언급하고, 우리의 뇌가 매운맛을 인지하는 경로를 설명하여 제시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44. [출제의도] 초고를 수정할 때 반영한 검토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초고’의 첫 문단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매운맛과 단맛을 좋아한다고 한다.’라는 문장이

삭제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맛 선호도를 나타낸 문장으로 글의 흐름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다. 수정된 첫 문단에는 '우리는 매운맛의 ~ 그 외에 계피, 마늘, 양파 등을 맵다고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이는 매운맛이 나는 음식의 예이다. 그러므로 ①이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에서는 소화 기관을 손상시키는 캡사이신이 든 고추의 매운맛 외의 다른 식재료의 매운맛을 즐겨 볼 것을 권하고 있다. 이를 고추와 다른 식재료를 함께 활용하면 매운맛의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하여 4문단에 추가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매운맛이 엄밀히 말해 과학적으로는 맛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가)의 내용을 매운맛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2문단에 추가할 수 있다. ② (나)에 따르면 TRPA1에만 결합하는 계피의 신남알데히드와 달리 박하의 멘톨은 TRPA1뿐만 아니라 TRPM8에도 결합하는 차가운 매운맛이다. 이 내용을 매운맛의 종류를 설명하는 3문단에 추가할 수 있다. ③ 3문단에는 마늘과 양파의 알리신이 뜨거움, 차가움, 통증을 모두 유발한다고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나)를 활용하여 그 이유를 보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알리신이 결합하는 감각 수용기의 종류가 두 가지이기 때문이다. ⑤ (다)의 마지막 문장을 활용하여 건강에 해가 가지 않게 매운 음식을 즐길 것을 권하는 4문단을 보강할 수 있다.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35 ~ 39] 언어**

**35. [출제의도] 제시된 문장을 의문문의 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75쪽**

㉠과 ㉡는 '언제'와 '어디'라는 의문사가 사용된 설명 의문문이다. 설명 의문문은 청자에게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한다. ㉢와 ㉣는 의문사 없이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인 판정 의문문에 해당한다. ㉤와 ㉥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강한 긍정 진술을 내포하고 있는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3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의문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37쪽**

'그디 었던 사르민다(그대는 어떤 사람인가)'는 청자에게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중세 국어의 설명 의문문은 의문형 종결 어미나 의문 보조사의 모음이 'ㄱ'로 나타났으나, ㉠의 경우 주어 '그디(그대)'가 2인칭이므로 의문문의 유형과 상관없이 '-ㄴ다'의 특수한 의문형 어미가 사용된 것이다.

**[오답풀이]** ① 중세 국어에서는 체언 바로 뒤에 의문 보조사가 결합하여 의문문을 만들 수 있었다. '賞(상)'과 '罰(벌)' 뒤에 '가'와 '야'가 쓰여 의문문이 만들어진 ㉡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의 주어가 2인칭(네)이므로 의문

형 종결 어미 '-ㄴ다'가 쓰였다. ⑤ ㉣는 의문사 '므슴(무슨)'이 쓰인 설명 의문문이다. 중세 국어의 설명 의문문에서는 의문형 종결 어미의 모음이 'ㄱ'로 나타났다.

**37. [출제의도] 여러 유형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단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233쪽**

'국화꽃[구과꽃]'에서는 중성의 'ㄱ'과 초성의 'ㅎ'이 축약되는 음운 변동과 중성의 'ㅈ'이 'ㄷ'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굴열매[굴렬매]'에서는 'ㄴ'이 첨가되는 음운 변동과 첨가된 'ㄴ'이 'ㄹ'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닭회충[다괴충]'에서는 중성 '리'에서 'ㄹ'이 탈락되는 음운 변동과 남은 'ㄱ'과 'ㅎ'이 'ㅋ'으로 축약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오답풀이]** ③ ㉠에서는 'ㄴ'이 첨가되는 음운 변동만 일어났다. 연음은 음운 변동이 아니다. ㉡에서는 중성의 'ㅈ'이 'ㄷ'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과 교체된 'ㄷ'이 'ㄴ'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 'ㅈ'이 'ㅊ'으로 교체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이는 모두 교체에 해당한다.

**38. [출제의도] 조사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95쪽**

㉢의 '조차'와 '마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도' 역시 같은 의미를 지닌 보조사이다. 이를 통해 체언 뒤에 보조사와 보조사가 연이어 결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그들은'의 '은'은 주격 조사를 대신하여, '고등학생은'의 '은'은 보격 조사를 대신하여 쓰이고 있다. ④ '정부에서'의 '에서'는 주격 조사이고, '공원에서'의 '에서'는 부사격 조사이다. ⑤ '구두랑'의 '랑'은 접속 조사이고, '언니랑'의 '랑'은 부사격 조사이다.

**39. [출제의도] 서술어의 자릿수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71쪽**

위 문장의 '만들다'는 주어 '우리는'과 목적어 '보고서를'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아래 문장의 '만들다'는 주어 '그는'과 목적어 '이야기를'과 부사어 '소설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오답풀이]** ① 위 문장과 아래 문장의 '걸다' 모두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② 위 문장과 아래 문장의 '지다' 모두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③ 위 문장과 아래 문장의 '빠지다' 모두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④ 위 문장의 '돌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아래 문장의 '돌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40 ~ 43] 매체 - 언어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45쪽**

**40.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슬라이드 1'에는 한 해 버려지는 투명 페트병의 10%만이 고품질 재생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조사 자료의 출처가 밝혀져 있지 않으므

로,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제시된 자료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41.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생산에 반영된 계획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슬라이드 4'에서는 (가)에서 언급한 투명 플라스틱의 구체적인 분리배출 방법을 화살표를 사용하여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거된 투명 페트병의 재활용 과정을 화살표를 사용하여 순서대로 제시한다(⑤)는 계획은 (나)에 반영된 학생의 제작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에 쓰인 언어적 표현의 기능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는 연결 어미 '-어서'를 활용하여 '생수병과 투명한 음료수병의 재질이 '전부 페트'이기 때문에 이를 분리배출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의 연결 어미 '-어서'는 앞 내용이 뒤 내용의 이유에 해당함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것이다.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생산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보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마지막 부분에는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환경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나)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슬라이드 B'를 활용하여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 것이 적절하다.

**[44 ~ 45] 매체**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56쪽**

**44.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매체의 특성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경은'은 '파일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완성된 웹툰 파일인 '대기만성 웹툰.jpg'를 '원준'과 '유정'에게 공유하고 있는 것이지 웹툰의 줄거리를 정리한 파일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③ (가)에서 '경은'은 '확인하고 수정해야 할 부분 있으면 말해 줘! 반영한 다음에 누리집에 올릴게.'라고 말하며 (나)에 웹툰을 게시하기 전에 웹툰에 대한 수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④ (나)에서 댓글의 순서는 '추천순'을 기준으로 하여 정렬되어 있다. 이를 통해 독자가 자신이 선택한 배열 기준에 따라 댓글의 순서를 정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5. [출제의도] 웹툰 제작 계획을 웹툰에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경은'은 장면이 세로로 제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림의 노력이 꾸준히 이어졌'음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겠다고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나)에서는 '최림'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노력하고 있는 장면을 계절의 흐름에 따라 세로로 나열하였다. 즉, '최림'의 다양한 노력을 보여 주기 위해 달라지는 인물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그린 것이 아니다.